

교계 연합단체들 총회 열고 내년 준비 박차

인랜드교역자협의회, 샌버나디노카운티교협, 벤츄라교역자협의회 총회 개최



인랜드교역자협의회 총회 참석자들이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두번째줄 좌측 첫번째가 신임회장 박혜성 목사.

요즘은 교계 연합단체의 총회 시즌이다. 최근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이 총회를 마친 데 이어 4일부터 6일까지 남가주의 세 지역 단체가 총회를 열고 내년을 이끌어 갈 새 임원들을 선출했다.

인랜드교역자협의회는 지난 4일 메달드햇스프링 온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새로운 회장에는 박혜성 목사(남가주웨슬리교회), 총무에는 류수열 목사(한울림교회), 회계에는 강문수 목사(남가주웨슬리교회)가 선출됐다. 박혜성 신임회장은 "인랜드 지역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인랜드교역자협의회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매년 열리는 인랜드지역교회 성탄연합예배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어 성탄연합예배를 위해, 목회자와 가정의 건강을 위해, 기도회를 갖고 박혜성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샌버나디노카운티한국교회협의회 제3차 정기총회는 5일 오전 10시 빅토빌예수마음교회에서 열렸다. 정운 총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에 이어 임원 선거가 있었으며 타 지역으로 옮겨가 공석인 부회장의 임기를 고려해 제2대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를 회장에 연임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지난 회기 총무였던 정중재 목사(레드랜드한국교회)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벤츄라교역자협의회 총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임원과 관계자들. 좌측 두번째가 신임회장 최상훈 목사.

김성일 회장은 "지난 회기 동안 샌버나디노카운티 산하의 여러 교회들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새로운 회기에는 산하의 교회들이 말씀을 많이 통독하는 캠페인과 지역교회 안에 대각성 기도가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샌버나디노카운티는 행정상 합리적인 절차를 위해 12월 초에 정기총회를 열도록 회칙을 수정하고 LA성서화 운동본부에서 성탄절을 맞이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미주기독교총연합회가 주도하는 대각성기도회, 지역사회를 위한 폐기물 수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폐회했다.

벤츄라교역자협의회 총회는 7일 웨슬레스트레이크교회(오정택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1부 예배와 2부 총회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오정택 목사는 "유다처럼 주님께 임을 맞추고 주님을 팔았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임맞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인 우리 먼저 모범을 보이지"고 말했다. 2부 총회에서는 최상훈 목사(벤츄라감리교회)가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됐고, 총무는 이상영 목사(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가 맡았다. 이어 15일에 열리는 '벤츄라지역성탄연합예배'가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INTERVIEW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목회자가 치유해 주어야

가나안교회는 얼마 전 성전 보수를 마치고 39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가지며, 17명의 제직을 세워 새로운 비상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철 담임목사는 "교회의 낡은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성전 보수를 끝냈다"며 "이제 전교인, 그리고 임직자들과 함께 새롭게 용비할 때다"고 말했다. 가나안교회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이 목사는 "목회자로 인해 상처를 받았으면 목회자로 인해 치유를 받는 것이 옳다"며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9년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선 "영향력"을 꼽았다.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 승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목사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주론하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되자는 것이다. 저 교회에 가면 은혜 받는다. 저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는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가나안교회는 청년 사역에 집중한다. 이철 목사가 청년 사역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39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가나안교회의 신앙 유산을 차세대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 관해 7.8



이철 목사

할은 설교에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주간에 약 40시간을 설교에 투자하며 주중동안 있었던 삶의 여화를 고르고 설교문을 작성한 후, 그것을 모두 외우는 것이 그의 설교관이다.

그는 "목회자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손인식 목사의 조언에 따라 설교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설교가 그만큼 귀중한 것이기에 준비하는만큼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철 목사는 가나안교회에 2009년 9월 20일에 담임목사로 공식 취임했다. 이 목사는 지난 6년간 베델한국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로 사역했으며 탈북신학대에서 M.Div.와 M.A.C.(크리스천교육학)을 수료하고, 바이올라 대학에서 Ph.D.를 취득했다.

→ 2면에 계속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이슬람을 알자' 세미나 개최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회장 김정환 선교사, 이하 남선협) 주최로 '이슬람을 알자' 세미나가 베델한국교회(손인식 목사)에서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됐다. 강사는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 다니엘 선교사로 그는 이슬람의 신관, 교회, 세계관, 무슬림 전도와 제자훈련, 최근 동향 등을 소개했다.

공 선교사는 이슬람의 최근 동향에 대해 "현재 정치적 이슬람은 상승세이고 신앙적 이슬람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슬람학자들은 오늘날 무슬림은 많은데 이슬람이 없다고 한다. 이슬람의 형식성이 강화되면서 맹목적인 추종이 많아지고 결국 과격과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공 선교사는 "이슬람주의(Islamism)라는 말은 서구의 제국주의와 문화를 깊이 비판하고 정치권에 이슬람이 더 강력한 역할을 하도록 일하는 사람이다. 온건한 이슬람주의(moderate Islamism)는 민주적인 정치 구조 안에서 커뮤니티 발전과 사회 정치적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과격한 이슬람주의(radical Islamism)는 이슬람의 목적과 대의를 획득하기 위하여 폭력에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둘은 창조주, 절대자, 한 분의 신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알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메

카에 있는 카바의 신이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아버지), 성자(아들),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 선교사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다른 점을 설명했다. 공 선교사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삶의 방식(a way of life)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형식적이지만 하루에 다섯번 알라를 생각한다. 그리고 매일 그들의 언어 속에 신과 무함마드에 대한 어휘를 반복하고 있다. 둘째로 기독교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사회를 기독교화하지 못했다. 이슬람은 그 사회를 이슬람화 시키는 사회로 변화시켜 간다. 이슬람은 포용성을 가지고 접근하

고 있다. 셋째로,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사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윤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 선교사는 "무슬림과의 사소통은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가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실현되어야 한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설명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지고, 우리의 삶과 무슬림의 삶이 만나는 유기체적인 관계가 이뤄지는 성육신 사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213-386-5500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친환경 미래 에너지 크로버

엔프렌LED가 당신의 눈을 선명하고 환하게 밝혀 드립니다

추천의 글
LED 확대경 램프를 추천합니다

새로 개발된 LED 확대경 램프를 얼마전에 어느 분의 소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을 보호해 주고 피곤치않게 도와주며, 전력도 덜 소모케하며, 열도 나지 않아 참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램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글자마저 확대해서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참으로 실용적입니다. 램프를 구입하기 원하는 분은 한번 고려하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1년 9월 20일

박희민 목사

*** 수익금의 일부는 선교에 쓰여집니다.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전기 (213) 386-4882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Torrance * Good 네이비스 (310) 326-6666
Las Vegas * SKY-N 홈쇼핑 (702) 370-3366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crover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나날이 변화되는 가나안교회의 이철 목사

상처받은 교회 치유하며 새로운 부흥 기대



-목사님께서 교회에 취임하시기 전까지 교회가 내홍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취임한지 2년이 지났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과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봉합되는 가운데서 또 2차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서 느낀 것은 지금도 어려움을 알아가는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성도들이 목회자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목회자에게 치유를 받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담임목사로 오게 됐고, 그런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와서 보니 가나안교회가 교회론에 있어서 약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목표를 하나 하나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 모습을 띠다가,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소통을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겁니다.

특히 에베소서 말씀, 교회 제반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올바른 목회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 목회자가 말씀의 꼴을 먹이면서 올바른 성경적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위치상 LA와 OC 중간에 있다 보니, 양쪽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LA쪽에서는 헌금이 20~30%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어렵지만 얼마 전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성전 보수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여기 이사 온지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 보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천장에서 비가 새서 카펫 바닥에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보수를 하게 돼 교

회 로비 바닥을 타일로 깔고 문도 바꾸고 방송 시설도 새로 구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낫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 능동적인 도약을 하려는 것입니다.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교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나안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오

25년된 성전 보수하고 임직자 세력 대심방 통해 성도들 마음 열고자 노력 세상의 등대되는 교회 되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보니 성도들이 피해 의식 속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나서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전 보수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목표를 제시하니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을 추진한 후 변화되는 것이 보이나 교인들이 좋아합니다. 교인과 목회자간의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가나안교회는 심방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여태껏 대심방은 두 번 했고, 희망하지 않은 가정을 제외한 교인들 집을 제가 다 돌았습니다. 요즘도 화,수요일은 심방을 하는데 교인들 마음을 열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심방을 가면 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0년이 넘는 교회인데 목회자 심방을 처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람의 마음을 갖고 교인들을 만나려고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 5분을 포함해 17분이 임직을 받았습니다. 구역이 새롭게 개편되는데, 임직받은 분들이 앞장 서서 사역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교회가 올해로 창립 39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의 수고와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도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게 됨으로 힘들어 하는 다른 교회에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인들에게 주문하는 것은 좋은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좋은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 '저 교회 가서 배우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이민교회를 보면 40일, 100일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기도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인들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갖춰야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표어를 하나 정했습니다. '복음의 방주를 만들고, 세상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로 성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사아서 60장에 가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면에서부터 무리가 몰려오고,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발자국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이민 교회에 좋은 롤모델이 되자"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그럴 때 성도들이 치유가 많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주일예배에서는 아픔을 감싸안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목회하시면서 요즘 주로 생각하시는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티올

동부사인&트로피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ESL...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건축설계...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의사보조... Medical Assistant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Accounting (AA Degree)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그래픽,포토샵...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오전, 오후, 저녁
- ▶ 유학생을 위한 1-20 벌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Advice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방문비자(B1,B2)를 학생비자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818,382,6000

Bus 20분 ORT Lajolla Fairfax 맥드넬드 Wilshire

상담필수 오전 8:30~1:30 한국인 상담 : 그레이스 직통 (213) 703-6863 (323) 966-5444

상담: 그레이스 (Grace)

글로벌선교교회, 세시봉 친구들과 초청 '나눔축제'

스킷 드라마, 실내악공연, 댄스, 콘서트 등 다채롭게 진행



세시봉의김세환 집사와 윤형주 장로가 노래하고 있다.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목사)에서 2일부터 4일까지 게스트로 윤형주 장로, 김세환 집사, 최명자 사모를 초청해 2011 행복나눔축제 '세시봉 친구들과의 행복 이야기'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했다.

3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 집회는 다채로운 행사로 열린 가운데, 글로벌선교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들로 구성된 드라마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버스 기사의 이야기'란 주제로 스킷드라마를 펼쳤다.

이어 윤형주 장로와 김세환 집사의 '세시봉 콘서트'가 진행된 가운데 이들은 70년대 히트곡들을 듀엣으로 부르며 50-60대 장년층의 감성을 자극했다.

이날 윤형주 장로는 지난 시절 간

증을 하며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다. 윤형주 장로는 1968년 가수로 데뷔해 1970년대 대표적인 인기 가수로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 당시 톱가수로 명성을 날리던 때 이른바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장로는 "고통받아 죽고 싶던 때에 찾아온 친구를 소개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그 친구는 이 나이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간증하며 찬양과 히트곡들을 연이어 불렀다.

윤 장로는 미담 서정주 시인, 서진규 박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이야기를 전했으며, 유머스러운 달변으로 집회를 이끌었다.

윤 장로는 "서대문 구치소에 갇혔을 때, 내가 보기에 그 감옥은 내 인생이 끝나는 자리였다. 나에게 끝이었는데 그분에게는 시작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로는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희열은 무엇인지 아는가"라고 물으며 "한창 인기를 누릴 때 전국 250만 명의 시청자들이 나에게 박수를 친다고 생각하면, 가수는 그것에 미친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그 희열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증거했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진행된 팬 사인회에서는 지난해부터 한국에서 불어오는 세시봉 열풍을 보여 주듯 중앙년층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

토마스 맹 기자

"하나님과 하나, 성도간 하나, 세상과 하나되는 교회"



하나인교회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이웃 초청집회 씨앗을 개최했다.

하나인교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씨앗" 이웃 초청집회가 지난 3일 열렸다. 2개월 전부터 온 성도들이 초청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한 집회에는 30여명이 참석했다.

1부 만남의 기쁨에서는 저녁식사 와 함께 색소폰 연주, 피아노 연주, 갓 스이미지의 뮤지컬 공연 등이 있었고 2부에서는 하나인교회의 발자취를 담은 동영상에 이어 뉴먼(Dr. Newman) 목사가 '올바른 교회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뉴먼 목사는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하늘에 앉히

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면서 "그 은혜를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했다.

김장군 담임목사는 "이 집회를 위해 성도들이 40일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으며 관절염에 걸린 한 성도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병이 낫는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했다. 또 "이 집회는 불신자를 초청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인교회 온 성도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하나됨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PHOTO NEWS



소중한사람들-나성순복음교회 홈리스들에게 사랑을

소중한사람들이 주최하고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주관, 후원하는 사랑의 점포 나누기 및 이마음 대축제, 그리고 코리아 바비큐 파티가 3일 오전 시작됐다.

이날 다운타운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에게 점포 500벌이 전달됐고 이 미용사 약 30여명이 거리 현장에서 홈리스들에게 이마음 봉사를 했다. 이날 나성순복음교회 교인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약 200-300여명에게 이마음 봉사를 펼쳤고 그들에게 코리아 바비큐(불고기)가 배식됐다.

토마스 맹 기자

"메시아 대 연주회" 성대히 개최



성탄절을 앞두고 Holy Voice Mission이 메시아 대 연주회를 열었다.

Holy Voice Mission 메시아코랄(단장 한중철 박사)이 연출한 '메시아 대 연주회'가 4일 오후 7시 30분에 에너하임에 위치한 새살교회에서 막을 열

렸다.

연주회는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목사)가 주최, OC교협(회장 엄영민 목사)과 OC전도연합회(회장 손

찬우 집사)가 후원하고, Holy Voice Mission(단장 한중철 박사)과 새살교회(과경동 목사)가 주관한다.

연주회 지휘는 송규식 목사가 맡았고 독창자로는 성악가 김선영, 지경, 주광옥, 권상욱 씨 등이 나섰으며 USC 오케스트라가 협연했다.

특별히 이번 연주회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화선교사역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 자리에는 한인들만이 아니라 미국인들과 히스패닉도 함께 했다.

지휘자 송규식 목사는 "요즈음 시대는 IT산업과 더불어 문명이 발달해 SNS를 통해 소통하는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은 갈수록 단절되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와 민족간의 간격은 심각할 정도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화를 통해 특히 음악을 통해 그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메시아코랄 사역의 의의를 전했다.

메시아 코랄은 내년 부활절에 한인타운에서 부활절 메시아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연주회를 가질 계획이다.

함께 한 단원들은 대체로 메시아 연주 경험이 있어, 메시아를 통해 받았던 깊은 감동으로 어려운 세월을 이겨왔기 때문에 메시아코랄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그 안에 우리 신앙 정서가 살아 있기 때문에 메시아 찬양은 우리 신앙 생활의 활력을 주는 신나는 사역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져 감동이 더했으며, 연주회가 다 끝나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여운을 남겼다.

토마스 맹 기자

에덴선교교회 임직 감사예배 드려



이날 임직자들이 예배 후 기념촬영에 임했다.

에덴선교교회가 4일 오후에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집례에 윤석길 담임목사, 설교에 이정석 목사(미주성결교회 LA동지방회장), 기도예 주신 목사(미주세한교회), 축도에 고남철 목사(미주성결교회 경경총회장), 권민에 차광일 목사(한빛성결교회),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축사에 최경환 목사(LA시온교회), 마원철 목사(인랜드교협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임직자는 장로에 안국호, 안수집사에 김기성, 임문현, 명예권사에 최정숙, 서인자, 권사에 안명애 김은숙 등이다.

토마스 맹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징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usajyk@gmail.com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윌톤장로교회에서는
중·고등부를 가르칠 전도사를 찾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

자격조건 | 정규 신학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신 분(남,여 상관 없음)
한국어 사용 가능하고 영어 설교 가능하면 더 좋음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지참해서 교회 전화 연락 후 방문 요망

교회안내 | 470 N. St. Andrews Place, Los Angeles, CA 90004
Website: www.wiltonchurch.com
Tel: 323-469-5959
김도석 담임 목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인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한길교회 1주년 바른 신앙으로 진정한 부흥을

“더 낮은 곳 향해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될 것”



한길교회가 4일 오전에 본당에서 통합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LA 한인타운의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한길교회가 4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통합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길교회는 지난 2010년 12월 5일 구 세계로교회가 피코와 놀탄에 위치한 구 헤브론교회와 통합을 결정해 새로 출범한 바 있다.

당시 타운 내 대형교회들의 내분과 분열 사태로 한인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추락하고 있었던 까닭에, 서로 다른 교단의 중형교회인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 각자의 부족함을 채우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자 함은 결코 예상외의 일이 아니었다.

향간에서는 통합을 축하하기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심지어 '오래지 않아 분명 재분열하게 될 것'이라 약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욱이 구 세계로교회는 LA

외곽에서 11년 동안 성장한 교회였기에 한인타운에 대해 어두웠고,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한인타운에서 사역해 온 구 헤브론교회와의 통합에 대해 어느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진준 목사를 초대 당회장으로 하여 한길교회를 출범시킨 그리스도임을 공감하며 각자의 모든 기득권과 주장을 내려놓은 채 한 가족을 이루려 갔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한길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전교인과 교역자들은 주의 말씀 안에서 통합원리에 당당히 한인타운 대표 중형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날 감사예배는 노진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설교는 박신

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가 전했다. 박 목사는 "힘든 이민자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동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것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며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의 주어는 하나님이셨다. 돌을 맞고 굶주리고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어서 그가 많은 일을 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한다. 특히 한길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금식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또 한길교회는 팀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복음으로 하

나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았지만, 또한 가장 큰 선물을 얻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고난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노진준 담임목사는 "물론 지난 1년을 지내 오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와 교인들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예배에 더욱 집중하며, 보다 충실히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썼다"고 소감을 전했다.

KOSTA의 주강사로 전 세계를 오가며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노 목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 온 15세로 동부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좁은 청소년 사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휴가 기간에도 타교회 청년 집회를 인도할만큼 열정적이다. 그렇기에 새로 한길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젊은 부부와 청년들의 비중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노 목사는 "교회의 부흥은 양적으로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인들이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가를 의미한다고 본다. 결국 건강한 교회가 성장을 이룰 때 수적인 부흥이라는 결과가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다"라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에 우리 한길교회는 더욱 낮은 곳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그들의 문화적 코드 읽는 것” 청년 전도의 관건

제 25회 성결포럼이 '2040세대 전도, 길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1일 오전에 임마누엘선교교회(류종길 목사)에서 열렸다.

포럼은 류종길 목사(미주성결대학교 총장)의 인사, 김광렬 목사(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의 기도, 박현모 목사의 발제, 황의정 박사(미주성결대학교 교수)의 논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한 박현모 목사는 필요충분적인 전도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현재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은 절대적으로 어렵고 절박하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를 채워 주는 전도를 사랑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래의 불안, 진로 선택, 이성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실제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미래의 불안이었고, 대학생들의 자살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이성 문제와 미래의 불안이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또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현대 문화는 포스트모던 문화다. 포스트모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감성과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성적인 터치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위해 전도에 있어서도 감성적인 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인된 전통적인 접근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목사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SNS는 요즘 젊은이들의 소통의 장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전도하고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나성 동부지역, 성탄연합성가제 개최



동부지역 교회 연합으로 성탄연합성가제가 4일 유니온교회에서 열렸다.

동부지역 교회 연합으로 2011 성탄연합성가제가 4일 오후 5시에 유니온교회(문병용 목사)에서 열렸다.

행사는 사회에 김민섭 목사(엠마오장로교회), 기도에 문병용 목사(나성한미교회), 말씀에 문병용 목사(유니온교회), 축도에 이경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나성한미교회가 <목자의 기쁨>, 선한목자장로교회가 <Oh Happy Day>, (Pacem Noel)을, 선한정지교회 <은혜 아니면>, 아름다운교회 <구세주가 나셨네>를, 유니온교회 <African Alleluia>를 찬양했다.

이인규 기자

도미니카 한인선교센터 착공예배 드려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는 지난 11월 25일에서 12월 1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사탕수수 지역을 선교하는 한요한 선교사를 방문한 후 선교센터 착공예배를 드렸다.

한요한 선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박효우 목사가 설교하고 김종덕 목사가 축도를 했다.

뉴욕총신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다가 지금은 원로목사 추대를 받은 한요한 선교사가 5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선교센터는 Battday 사탕수수 지역 선교를 위해 건축하는데 한 독지가가 건축기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Battday 지역은 아이티에서 넘어온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비참할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과 멕시코 에니켄 농장에서 일했던 모습과 흡사해 많은 한인들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주 지역에서 박효우 목사, 정요한 목사, 박일천 선생을 비롯하여 뉴욕 지역에서 김종덕 목사 부부, 김승희 목사 부부, 박수복 목사 부부가 참석했다.

문의: 1-800-383-6295

토마스 맹 기자

PHOTO NEWS



어린이를 위한 CII 할리데이 축제

약 4천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할리데이 축제 Children's Institute, Inc.(이하 CII) 토렌스 캠퍼스에서 지난 3일 열렸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축제의 가장 인기있는 행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장난감 선물 증정이다. 장난감 회사인 매트(Mattel)을 비롯한 30여개 회사 및 개인 자선가의 도움으로 준비된 장난감들은 연령대 별로 나눠져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고를 수 있었다. 특히 CII 토렌스 캠퍼스 야외에서 펼쳐진 말타기, 바디 페인팅, 인형극, 산타클로스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는 연발연시를 보내며 소외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가득한 웃음과 따뜻함을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담임목사 청빙 공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에 위치한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는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지난 23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며 사랑으로 함께 해 온 신앙공동체입니다.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며 신실하게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분 (담임 목사, 부목사, 혹은 선교사)
- 미주 한인 예수장로교회 국제총회에 속한, 또는 본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양식은 갈보리교회 website www.sandiegocalvary.org에서 download
-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및 가족 소개서 포함
-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 설교 2회분 (동영상 DVD, MP4, 또는 Website Link)
- 추천서 1부 이상 (추천서는 1차 서류 심사 통과한 분에게만 갈보리교회에서 요청합니다.)
- 목사 안수 증명서 사본 및 최종학교 졸업 (학위) 증명서

접수 마감: 2012년 2월 4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후, 청빙후보자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1차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후보님들께는 전화인터뷰가 있습니다.

제출처: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6970 Linda Vista Rd, San Diego, CA 92111
Email: sandiegocalvary@att.net

(제출서류는 PDF File로 상기 e-mail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추천서 또한 추천자로부터 직접 상기 e-mail로 보내주시길 권장합니다.)



유동근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제4회〉 마태복음 2장

유동근
한국은누리신학교교회 목사



1절,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기록하는 장이다. 먼저는 출생할 때의 이스라엘 상황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한 이래, 메데 바사와 헬라, 로마에 의해 나라를 차례로 탈취당하고 식민지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점령국인 로마의 황제는 유대와 갈릴리 지방의 섭정 왕으로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있었다. 즉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였던 때는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때인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대 사람으로서, 이삭의 베다론 아들, 예서의 자손이고, 그들은 언제나 야곱(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의 길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다른 민족의 지배 하에 신음하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리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나머지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 기다리던 왕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배출한 선민 이스라엘은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 더 이상 "여기에 그리스도가 출생하였다"고 선포할 선지자를 갖고 있지 않고, 멀리 동방의 현자들(magi)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출생을 알았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더 이상 유대나라에 그런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말이다. 영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황이라는 말이다.

동방의 현자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메시아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임)가 있다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2-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태어나셨더니가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 아닌가?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막상 왕이 오셨다는 말을 들을 때 소동했다는 것이다. 헤롯이 좀 그렇다면 문제가 다른데 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소동했다(troubled)는 말은 원문에서 '당황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도 경종이 되는 말이다. 임으로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막상 오신다고 하면 당황스러워 한다는 말이다. 현재의 즐거움과 안락과 평안을 쫓아 볼 안스럽고, 주지 된다는 것이다.

4-9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노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헤롯왕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성경 박사들)을 모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니 헤롯도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인물은 아

닌듯하다. 그럴 때 당시의 유대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종교인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면 잡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왕에게 그들이 아는 성경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정말로 성경을 잘 알았다. 왕이 묻자마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지식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왕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 그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들만큼 도 메시아의 출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있는 자들은 동방의 박사들과, 그를 죽이려는 시기로 가득한 왕 헤롯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객관적인 성경지식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들은 종교적인 지위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 막상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난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10-12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에 대하여 생각을 좀 해 보겠다. 그들은 처음에 별(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인도를 예시함을 보고 동방에서 왔는데, 오다가 사람의 권력의 지배를 받았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계시는 물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벧후 1:19). 그들이 별을 보고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인 별빛의 인도를 받아 살아 나가는 것을 예시해 준다. 그러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 아니냐? 또 현재의 왕이 알 것이 아니냐? 왕가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냐? 등의 세속적인 개념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별빛을 보고 오다가 그만 별빛을 소홀히 하고 세속적인 권력의 영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결과로 영적으로 내적인 별빛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의도 없이 그곳에다가 불을 지르고 만 것이다. 헤롯은 그들로 말미암아 정보를 취하였고 그 정보를 통하여 그를 죽일 계획을 갖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방박사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왕에게 정보만 제공한 꼴이 된 것이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만나면 그곳을 알려달라고 하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위에 구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떠날 때 다시 별의 인도를 따르게 됨을 본다. 그들은 아직 아기 예수를 못 만났어도 별을 보고는 매우 기뻐했다. 이는 그들이 한 동안 별빛을 잃고 헤롯에게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 그러다 다시 별빛의 인도를 받게 되었을 때 좋았다. 바로 이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실상 별빛(잠깐 계시)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별빛의 임무이다. 성경의 심오한 지식을 결론하는 것이 자비를 만나는데 이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방의 박사들은 집에 들어왔다. 이때는 누가복음의 구유에 누인 아이보다는 컸을 때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는 베이비(baby)가 아니라 차일드(child)로 되어 있다. 누가복음은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a baby wrapped in cloths lying in the manger)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는 아이(child)인 것이다. 그리고 구유가 아니라 집에 계신다. 항상 구유에 계셨던 것은 아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극 때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계신 예수님께 황금, 몰약, 유향을 드리는 것을 연출한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온 때는 누가복음의 목자들이 구유에 찾아 온 때와 다르다. 지금은 집에 계신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아기와 모친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아기와 함께 경배를 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다. 아기 예수께만 경배한 것이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이시다. 만일 오늘 천주교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면 아기 예수만이 아니라 성모에게도 뭉가를 했을 것이다. 이는 분명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들은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왕과의 약속을 깨버린 것이지만 그런 마귀적인 부탁을 지킬 필요는 없었다. '사람이 잘못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과 약속을 할 수 있지만 후에 속아서 그렇게 된 줄을 알았으면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박윤선 주석, p. 97).

계시를 얻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계시를 얻은 후의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다를 때가 있다는 얘기이다. 그 때 헤롯과 있을 때는 동방박사들이 잘못 인도되고 있던 중이다. 별빛을 떠나 헤매던 중이고, 그러다가 마귀의 전술에 휘말린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꿈을 통해 서나마 바로잡아 준 것이다. 그리고 그레도 현명한 그들은 한 번은 모르고 당했지만 두 번째는 속인수에 빠져들지 않은 것이다.

13-15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어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 길에 대하여 요셉에게 현몽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이다. 중요한 일에 쓰임 받은 것은 다 마리아이다. 은혜도 마리아가 크게 받았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다. 오늘날도 아내들이 상당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쓰임을 크게 받으시기도 하나님은 많은 경우 갈 길을 남편들을 통하여 지시하신다. 이는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가기 때문이다(엢 5:23-24). 이를 동양철학이나 유교관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귀한 계시와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모든 권위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를 이끌어줄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 바울에게는 아나니아와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다. 천하의 계시가 뛰어난 바울이라 하더라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나 자기만 못한 다른 사역자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만 역사하지는 않으셨다. 헤롯을 죽게 한다든지, 천군을 보내어 지키게 한다든지 하지 않고 시고, 한 동안 애굽에 가서 피해 있으라고 한 것이다. 언제까지인가? 헤롯이 죽기까지이다. 하나님은 원수 헤롯을 당장에 처치하는 방식으로 아들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 그냥 순응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이런 때 헤롯을 죽게 하라든지 기적을 베푸시어 아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애굽에 피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 머물라'이다. 이렇게

하여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게 된 것이다.

16-18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바 라미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실상 박사들을 먼저 속인 것이다.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한 것은 박사들을 속인 것이다. 죽일 의도를 가진 것이면서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한 것이다. 헤롯은 자기가 박사들을 속인 것은 생각지 않고 박사들이 자기에게 약속을 갚 것만 계산한다. 그리고 진노하였다. 대개의 권력자들이 이렇게 한다. 자신들은 권력을 위해 잘못을 해도 용인이 되고 약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욕박지르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이와 같이 벌써 2000년 전에도 있었다.

권력은 이렇게 크게 잘못을 한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두 살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러므로 힘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즉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보다 배나 조심을 많이 해야 실수가 적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나 안전이나 번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다른 많은 것을 잊고서라도 기뻐하는 것은 기쁨사이다.

그때 많은 어린 아이가 죽었고 큰 슬픔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 또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19-23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벨라로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어 함이더라

주의 사자는 아기에 대하여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한다.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말이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에 있어서 지대한 동여를 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서 한동안 계셨다. 나실 때부터 필바과 공적 아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 오셨던 구주의 삶이요 인생이다. 그들은 순종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아직 무서웠다.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살기 어려웠다.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이다.

실상 문제는 없는 것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니 깊숙이 들어가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 하는 자들은 그 자신이 성정을 이해해 주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적절한 곳으로 인도를 해 주었는데 그곳이 나사렛이란 동네이다.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살펴 적절한 곳으로 안내해 준 것이다.

그래서 살게 된 곳이 나사렛이다. 천한 동네, 당시 알아주지 않는 곳이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이에게 인정받을 만한 도시에서 자라지 않았고, 당시로 보면 그럴듯한 가문도 아니었다. 천한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이것이 그들의 신분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1번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12월 17일(토) 오전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생명나무교회, 풍성교회, 한솔보험,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재미 남가주 황해도 도민회 최진욱변호사그룹,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351-0955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2011년 12월 12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앞선하며 청첩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cusa.com / icc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턴)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메 디 케 어

1947년생을 위한 메디케어 플랜

We know Medicare



2012년 당신의 메디케어 신청에 관한 정보

안녕하십니까? 하나 헬스의 데이빗 강입니다.
저희 하나 헬스는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보험 플랜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하나 헬스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메디케어 보조보험, 그리고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만을 1년 365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처럼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다 때가 되면 메디케어 건강보험 플랜으로 돌아오는 철새와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 하나 헬스는 한인 시니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도와 드립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 INC 에서는

1. 1947년생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1947년에 태어나셨습니까. 10년 이상 부부 중의 한분이 메디케어 세금을 내셨습니까. 미국 시민권자 혹은 5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입니까. 귀하의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3개월 전에 귀하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단 10분이면 귀하의 메디케어를 신청하여 드립니다. 또한 EXTRA HELP, MEDI-CAL, MEDICARE SAVINGS PLAN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2. 메디컬과 메디케어 동시 수혜자를 위한 SPECIAL NEED PLAN의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SPECIAL NEED PLAN은 병원 운행 무료 택시 서비스, 치과보험 포함(\$0), 보청기 제공, 의료장비 제공, 안경 제공 등 일반적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컬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3. 1947년생 이상 시니어의 메디컬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메디컬의 종류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SSI를 지원받는 메디칼 \$1407.20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메디케어, 흔히 FBDE 라고 말하는 메디컬 수혜자는 65세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맹인이거나 아니면 장애(소셜 오피스에서 정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능하며 그 소득 수준은 독신의 경우 월 \$830 미만, 부부의 경우 1407.20 미만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A & D FPL PROGRAM은 65세나 맹인 혹은 장애인의 경우 한 달 소득이 독신의 경우 \$1,153 미만, 부부의 경우 \$1,536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 자격은 메디컬 WITH SOC입니다. 독신의 경우 \$1,138 미만, 부부의 경우 \$1,536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종의 DEDUCTIBLE 이 있는 메디컬 프로그램이며 매달 DEDUCTIBLE이 적용됩니다. 싱글의 경우 매달 \$600 그리고 부부의 경우 \$934 정도의 DEDUCTIBLE 이 매달 의료 행위 발생 시 적용됩니다.

4. 65세 이상 시니어의 EXTRA HELP PLAN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EXTRA HELP플랜이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메디컬 수혜자와 같은 금액으로 처방약을 구입하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그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신의 경우 한달 소득 \$1361 미만이거나, 부부의 경우 \$1839 미만이면 EXTRA HELP의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 헬스에 문의하여 주시면 여러분의 처방약 플랜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5. 65세 이상 시니어의 MEDICARE SAVINGS PROGRAM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B 의 보험료를 면제받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신의 소득 \$1815 미만, 부부의 경우 \$2452 미만의 경우 그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하나 헬스에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6.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십니까

신장투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SPECIAL NEED PLAN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플랜보다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7. 처방약 플랜의 신청을 고민하십니까?

하나 헬스의 전문 에이전트를 통하여 처방약 플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컬과 메디케어 동시 수혜자는 처방약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다 좋은 혜택의 처방약 플랜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객서비스 1-855-386-3088 Fax. 213-386-3992

※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약하시면 상담합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PRESIDENT :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2350 W SEPULVEDA BL A,
TORRANCE, CA, 90501



VICE PRESIDENT :
YOUNGDON LEE
LIC.#0G38129

Tel. 213-503-1650

3600 WILSHIRE BL #1620,
LOS ANGELES, CA 90010



DISRICT MANAGER :
SARA IM
LIC.#0F07269

Tel. 310-702-7006

2350 W SEPULVEDA BLVD #A,
TORRANCE, CA 90501



DISTRICT MANAGER :
MI YOUNG HONG
LIC:0672051

Tel. 714-715-6345

6011 ORANGETHROPE AVE #A,
BUENA PARK, CA 90620

저희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광고의 무단복제는 금합니다. 상기의 정보는 특정 상품의 광고가 아닌 시니어 건강보험에 전반적인 교육자료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전세계 기아 어린이를 살리는 캠페인 위해 CSCW(Center for Saving Children in World) 창설



<한 가정의 한 어린이를 살립시다>

SAM Care 박세록 장로의 선교편지

SAM Care에서는 지난 2년간 중국 단둥에 식품 공장을 건설하고 실험에 실험을 반복하면서 기아상태의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특별식품을 개발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도 간단한 수작업으로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했다. 이 제품은 SAM Care 의료팀이 직접 북한 시골에 들어가 의료 봉사하며 70여명의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됐고 그중 67명이 평균 3-5kg의 몸무게가 늘어 건강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더 좋은 제품 제작을 위해 한국 굴지의 식품회사인 농심이 R&D팀을 구성해 도움을 주었으며 국경없는의사회가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보급하던 기존 제품보다 더 맛있고 더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며 칼로리도 높은 제품이 탄생했다. 현재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고의 재료가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모든 재료를 직접 구매해 제작하고 있다.

사역 문의 및 후원) SAM Care 미주본부 213-381-1347(최상영 본부장) 국제본부 714-515-5433(이양화 본부장)

2011년도 참으로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달려 오신 여러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도,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우리를 능력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하고 더욱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SAM Care RUTF (사랑의 영양특별식품) 현품이 제조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정만 가지고 스스로 제품을 만들려고 긴 과정을 지났습니다. 한국의 굴지의 식품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문 개발팀에서부터 실제 공장 책임자들과 직원들까지 모두 자기를 일처럼 밤을 새워 실패를 넘고 또 넘어 드디어 1만 개의 현품이 나왔고, 모든 검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연이어 6만 개의 SAM Care RUTF 제조에 들어갑니다.

완전한 영양식품입니다.
세계 공통 인증기관인 한국인증기관(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 완전히 인증을 받았고, 제조하는 공장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허가를 받아 제품의 완전 검사와 적절한 모든 검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SAM Care RUTF(-5)와 Nutritional Candy(+5) 두 개의 제품입니다. RUTF는 한 달 이내에 응급 처치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5세 이후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기존의 농심 제품인 줄병과자를 영양적으로 더 강화하여 만들어 낸 제품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계의 어린이들을 살리는 운동본부 창설과 캠페인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명의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한 달 이내에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 버린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현재 200만 명의 어린 아이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바로 우리의 미래요, 우리가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국, 호주, 호주를 통틀어 교회와 후원자들이 모두 연합하여 어린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에 있어서 북한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최대의 기도제목이지만, 전세계의 어린 아이들, 그 곳이 아프리카, 동남아, 또는 남미 등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서 생명을 살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아프리카와 캄보디아에도 보낼 것입니다.

그 외 겨울나기를 돕겠습니다. 영양제 이외에도 추운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내복, 양말 장갑 등을 준비하여 4000명의 어린이에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한 달에 35불, 3개월에 115불이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위도 춥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은 주는 나눔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SAM Care 대표 박세록 장로



▲ 샘이 보급하고 있는 영양특별식품 RUTF. 이 제품은 5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 쌀과 콩이 주원료다. 고농도로 압축되어 한달간은 변질되지 않으며 기아상태를 겪은 어린이들이 죽처럼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5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영양급 식품은 농심이 개발한 줄병과자를 영양적인 면에서 더욱 개선하여 만들어졌다. 이 제품은 북한 어린이 뿐 아니라 어린이 기아 문제로 허덕이는 아프리카, 동남아 등으로도 지원될 수 있다.



RUTF 생산공장 내부

▲ RUTF를 제작하는 생산공장 내부는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을 제작하는만큼 청결과 안전 관리가 최우선이다.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 SEVIN가 대학, 자체 1-20발행
- ESL 프로그램
- 한국어를 배우듯이 영어를 듣는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up

매직 스테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알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워치-머큐리 콘도 상가 2층 일셔 + 웨스턴 코너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미 서부 침례신학교
 I-20 발급,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가능
 1월과 6월 2주간 집중 강의로 3년 내에 D.Min. 취득 가능
 GTU, UC Berkeley로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수학 가능
 M.A. in Community Leadership는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

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00-2592 / baptistbob@verizon.net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org

음향 / 영상 / 조명 연말 세일

LASERVISION
www.laservisionworld.com

shure mx418/c / 18" 감대상 마이크 \$199.00	earth work Cardoid 감대상 마이크 FM500 / 19in \$499.00 FM720 / 27in \$499.00	shure Cardoid 무선 편 마이크 WL184 : 115 degree \$106.00 WL185 : 130 degree \$107.00	shure sgx24/sm58/무선마이크 핸드 타임 세트 \$399.00	senheiser 유선 마이크 e835 three pack \$229.95 e835 single Handheld mic \$83.00	Roland KC-350 4-Channel 120w Stereo Mixing Keyboard Amplifier \$499.00	countryman E6I Directional earset mic / 무선 이어셋 마이크 \$449.00
Microboard CD/DVD Duplicator QD-DVD-125 \$519.00	Keyboard Instrument cable \$4.99 ea \$39.99 with 10ea	bose ds16f / 천장 스피커 \$79.00	superlux hd661 / 헤드셋 헤드폰 \$49.00	ebtech HE-2-XLR (HUM ELIMINATOR) (2 ch box w/XLR) 릴/도이저 제거기 \$84.99	sabin fbx1020 FBX Feedback Exterminator: 피드백 제거기 \$329.99	hosa cable MVK-025AU / 25ft 마이크 케이블 \$29.99
Sanyo PLC-XL4000 / 4000 Ansi 프로젝터 \$1,098.00	Benq SP-920P / 6000Ansi 프로젝터 \$2,999.00	Dalite Portable 100" Screen 90618 이동용 100인치 스크린 \$199.00	25ft VGA Cable / 프로젝터& 컴퓨터 케이블 \$15.00	MHP-20 / 프로젝터 마운트 \$47.00	Telex SM-2 Telex SM-2 - Personal Listening System - A (sets of 4 users) 동시용목기 세트(4인 기준) Call for Price	beringer f1220A Powerd Monitor/ 파워 모니터 스피커 Active Monitor, EQ and volume. 125W \$217.99
Music Stand / 보편대 \$34.99	whirwind Director / DI-BOX \$61.02	American DJ PAR CAN 56 Combo / 조명 파켄 콤보 키트 \$59.95	Numar MP-102 CD player \$199.00	Elaton ELED DW PAR 56 / LED 조명 \$369.00	Elaton DLED 36 TrBrick / LED 조명 \$499.00	Ushio 조명 릴프 for Source4 & Opti Par HPL 120V-750WX \$23.00 HPL 120V-575WX \$23.00 HPL 120V-375WX \$23.00 HX601 115V-575WBM \$25.00
Yamaha DXPV V-Drum \$899.00	Yamaha S90XS Keyboard \$2,299.00	Yamaha MotifXF7 76-key FSX action with initial and aftertouch \$2,999.00	Behringer XENYX X1204USB 12-Channel USB Mixer with Effect \$196.99	Behringer XENYX 1204 \$96.99	Edrol V-4 Video Mixer \$1174.95	Projector Lamp REPLACE Projector Lamp, Sanyo, Sony, Eki, Panasonic, etc... Call for Price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DEC 20-23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제4차 미주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



대회일정 : 2011년 12월 20일(화) - 23일(금)
대회장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and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4000명
등록방법 : www.gkymwest.org 에서 직접 신청
 Pay to the Order of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등록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2차 : 12월 11일까지 \$200

3차 : 12월 20일까지 \$240

00:00.02

00:00.01



www.gkymwest.org



Dave Gibbons Newsong Church | Bayless Conley Answers with Bayless Conley | Jason Ma Campus Church Networks | Francis Chan Author of Crazy Love | Darryl Smith Student Venture | 이용규선교사 Missionary to Mongolia | 안찬호선교사 Missionary to Kenya | 이용희교수 Esther Prayer Movement | 한철호선교사 Mission Korea Partners | 김하중장로 Ministry of Unification | 손인식목사 Beihel Korean Church

목회자 Conference at GKYM Vision

“통큰 목회 통하는 목회”

수련회 기간 중 인솔교역자들을 위한 2 일간의 열린 세미나 참여하는 젊은이들 만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은혜받고 도전 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WHAT IS GKYM VISION?

-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 회개와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
- 삶의 목적과 소명이 새로워지는 현장
- 삶을 헌신하는 시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서둘러 주십시오!



자세대선교자원개발을 위한 GKYM선교대회후원안내

하나님께서 미주에 청년학생선교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난해 3000명, 올해는 4000명의 청년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선교자원인 이들이 선교대회에 적은 부담으로 참여하도록 개별 등록금 이외에 1인당 70불이 더 필요합니다.

이일을 위해 차세대선교자원을 위한 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훈련받고 세워지도록 1구좌 70불씩 4000 구좌가 채워지도록 힘과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이들은 장차 한국 주도의 세계선교의 장을 열어갈 선교세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GKYM VISION HEADQUARTERS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389.5222
 FAX : 213.389.5200
 EMAIL : gkymvision@gmail.com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산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빅토빌예수마음교회
 담임: 김성일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합세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주말) 오후 1:30 한국어 학교(토) 오전 9:30
 15617 Burwood Roa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담임: 윤선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2부예배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교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화-목)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4063 Ingraham St LA, CA 90005 (필서파크초등학교교당)
 T. (213) 550-7377 / www.lahopecchurch.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남가주광명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더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령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교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철 목사, MARY KIM 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워십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1234 W.7th St. LA, CA 90017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당)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교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둘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9시, 2부 11시 금요성경(화-토): 오후 8:00
 중교등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요일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어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rah 저녁 7:30
 중교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환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터 4기 Crocker St.)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너지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어 오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r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오전 7:30(토)
 1818 S. Western Ave., suit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교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주심)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만찬)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LA 만나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2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SAM care international
 대표: 박세록 장로
 '말씀권나눔'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삼삼의 사랑이 되자
 www.samcare.org
 1309W.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명품 성도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국교회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의 물건들이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세계의 시장 뒷골목에서는 똑같은 가짜 물건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신발, 가방, 시계같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에서부터 조각과 그림같은 고가의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는 상황에서,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라 하니,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육안으로 구별해 낼 재간이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한 시사 코메디 작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한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소유한 가방이 진짜 명품인지 아니면 가짜 모조품인지는 비오는 날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방을 자기 품 속에 넣고 가면 그것은 진짜요, 그 가방을 비를 막기 위해 머리 위에 올려 놓고 가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진짜와 가짜는 위가 때 드러난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 해도 비바람을 막는 일에 사용되는 가방이라면 그것은 굴러 다니는 우산의 가치 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방이 그 고유의 가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품격과 가치를 가진 명품인 것이다.

성도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람이 진짜 명품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는 인생의 시련과 위기 때 드러난다. 진짜 명품 성도는 아무리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신의 가치와 품격을 잃지 않는다. 진짜 성도는 세상의 공격 앞에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와 시련이 올 때, 진짜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다시금 소망의 기회로 삼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는 세상이 주는 것에 일비일희하지 않는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기회로 삼으며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자신을 돌아보라는 사인으로 삼는다.

이 시대는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인생의 불화살을 겨누고 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상처, 불신, 거짓, 모함, 분노, 시련, 분열, 갈등, 열등감의 화살을 쏘고 있다. 이때마다 명품 성도는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의지로 그 불화살을 막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옷을 입고 그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막아내는 자이다.

수많은 인생의 불화살을 감내해야만 했던 20011년도를 한 달 남긴 이 시절에 올해의 승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승패는 마지막에 결정된다. 지난 11개월이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12월 31일을 보내는 그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옷을 입고 내 삶의 자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한, 우리는 성도의 가치와 품격을 지키며 다시금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겸허히 감격하며
그 나라 소망해**

최근 한국의 유명한 등반가가 히말라야의 고봉을 등반하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실종된 등반가는 세계의 고봉을 거의 다 등반한 전설에 가까운 등반가였기에 그 충격이 컸다.

한국이 여러가지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에베레스트의 고봉과 남극, 북극을 탐험하는 일에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의 강인함과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된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험난한 고봉과 극지에 도전하는 이런 일을 무모하고 쓸데없는 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가"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에 대해 최초로 에베레스트에 오른 힐러리 경은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 "무엇 때문에 산에 오르느냐고? 거기 산이 있기 때문!"

언뜻 들으면 이 대답은 동문서답 같이 들리지만 내 생각에 무척 영감있고 지혜로운 대답이다. 내 나뭇으로 조금 해석을 덧붙이자면 이런 이야기다. 산을 오르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산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그 산을 오르고자 하는 도전정신도 아울러 주셨다는 말이다. 그

런즉 산을 오르다는 것은 꼭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아니 더 나아가 신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런 까닭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높은 곳을 올랐다는 정복의 쾌감보다는 그 곳에 오른 후 더욱 더 경이해진다고 한다. 마치 어느 우주인이 우주에 간 후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처음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고상돈 대원은 그 곳에 성경을 묵고 왔다고 하며 최근 고봉을 많이 오르는 산악인들은 산을 정복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좋은 생각이다 싶다. 산이란 본래 누구를 정복하거나 정복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 서울 변두리의 산동네에서 자랐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신라시대 때 지은 절이 있으니 꽤 유서 깊은 곳이다. 우리 집은 그 산의 중턱쯤에 있었는데 집 앞으로는 산에서 흘러 내리는 작지 않은 개울이 있었고 그 건너편에는 높기 좋은 넓직한 바위가 있었다. 여름에는 개울에서 목욕을 하고 그 바위에 누워 하늘을 보며 별을 세웠다. 가슴이 답답할 때면 한숨에 오를 수 있는 산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 산에 오르면 멀리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

리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을 보면 언젠가 나도 저 비행기를 탈 날이 있을거야 하며 꿈을 꾸기도 했다. 산은 그렇게 나의 집이자 놀이터이자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그래서 난 지금도 산을 좋아한다.

그러나 형편상 자주 가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난 언젠가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부록으로 나온 에베레스트 산의 화보를 내 책상 옆에 붙여놓고 있다. 위성으로 찍어 다양한 등반 코스까지 세세히 그려진 이 화보를 보며 난 가끔씩 에베레스트를 오른다. 베이스캠프에서 산을 올라다 본 후 기가 막히게 출발하고 중턱쯤부터는 숨이 차다가 정상에 오를 즈음 정신이 몽롱해지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정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으신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그 너머 먼 하늘을 우러러 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내가 어린 시절 동네 뒷산에서 꾸던 꿈을 이루사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와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사 에베레스트 그 너머의 나라로 부르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그런즉 에베레스트 그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도전은 영원한 소망이자 영원한 감격이다. 나는 오늘도 에베레스트 그 너머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에는



김영길 목사
감사한교회

**우리를 미끄러 뜨리는
사단의 도구는
분노, 욕심, 비교 의식
주님의 손 붙잡는 것이
해답**

누구나 미끄러져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붙잡을만한 나뭇가지 하나 없는 비탈에서 허공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두 팔을 휘저으며 내려가다가 경사가 끝난 곳에 겨우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얼른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면서 욱시 보는 사람은 없었는지 주위를 둘러 봅니다.

살다 보면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미끄러운 지대입니다. 때때로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일단 화를 내기 시작하면 화가 화를 내게 합니다. 그렇게 화를 낸만한 일이 아니고 또 그에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불타오르듯이 일어나는 화를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불길이 건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내는 화도 소중한 인간관계를 빼앗아 무너지게 합니다.

제일 좋은 길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낸만한 일이 보이거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과하여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에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욕심이 내 감정을 지배하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도에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지 못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약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 마비됩니다.

탐욕을 품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길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위험한 비탈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길입니다.

탐욕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 때문에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겉으로는 칭찬하고 축하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어쩔 수 없는 불평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결핍을 수 없이 확장되어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미끄러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며 바라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비로써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박하심과 넉넉하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에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걸어 가십시오.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준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

**2011년 6월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의 Candidate Status 취득**

**기독교 상담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12년 봄학기

- **일시: 2011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 **특전: 참석자는 입학금 면제**
- **유학생 SEVIS I-20 발급**

박사 과정

- **목회학과 (D.Min / 유학생 I-20 발급)**

석사 과정

- **목회학과 (M.Div)**
- 세부전공: 목회학, 성서적 설교, 기독교 상담, 교회음악
- **신학과 (M.A.T)**
- **음악과 (M.A.M)**
- 세부전공: 합창지휘, 기악, 성악, 찬양사역(CCM)
- **기독교 상담학과 (M.A.C.C)** - 2012년 가을학기 개강

학사 과정

- **성서신학과 (B.A.B.S)**
- **기독교 상담학과 (B.A.C.C)**
- **음악과 (B.A.M)**

단기 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
- 총 18학점 과정 (6과목)
- **유아교육 교사 과정**
- 총 15학점 과정 (캘리포니아 주 자격증)
- **유아교육 원장 과정**
- 총 18학점 과정 (캘리포니아 주 자격증)

월드미션대학교 총 장: 임동선 박사 Ph.D., D.Min
부총장: Dr. John E. McKenna Ph.D.
TEL: 213.388.1000 |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FAX: 213.385.2332 | Email: information@wmu.edu Website: www.wmu.edu

입학문의
213.388.1000 Ext. 107
Email: admissions@wmu.edu

월드미션대학교가 등록한
미국 대학 인준기관
ABHE, ATS, TRACS
성직원, Candidate Member, 성직원



[새벽강단 57] 하나님의 맹세



배명환 목사
로렘장로교회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망하여 새벽예배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에스겔 20:23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려 여러 민족 가운데에 헤쳐라 하였나니

20:24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20:25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20:26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면 끝입니다. 그러나 멸망하게 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쳐서 멸망하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

다. 이제 2011년도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축구에 시작 5분, 끝나기 5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도,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잘했더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포기하지 말고 비록 상황은 역전의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열매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들던지 아니 들던지 패역한 백성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린 나를 보내신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능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린 전능자 앞에서 있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수치를 역울함과 분노 가운데서 처음엔 거부하고 발악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방법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항상 만민경적인 방법과 현미경적인 방법을 양면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매맞고 혼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령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역사 뿐 아니라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간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패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정당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참 불의합니다. 배은망덕하고 죄송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스

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심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의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이런 원리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신실하고 변함없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 자리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영적인 병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핵심된 리더십이 건강하고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없다고 일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성숙하고 품위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가 중요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를 닮게 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동시에 패역의 역사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장성한데 이제 부모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만큼 키워 놓았으면 할만한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서셔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때문에 증인을 서시는 것입니다.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찢고 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하고 하십니다. 누가 지금 누구에게 맹세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시는 찢고 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렇게 만든 범인은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전 피조물 앞에 창조자가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라고 했습니다. 1세들은 실패했습니다. 패역한 역사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역한 그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심판의 역사 가운데 회복의 예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심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심판 병과 아픔 질병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다시 정화시키고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역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때를 맞을 때,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 와서 잔인하게 도륙합니다. 그 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여쭙습니까?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건 맞겠는데 왜 어찌 우리보다 악한 자를 쓰

십니까?”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데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지옥의 불소시개 정도로 여기는 이방인에게 환란과 수치를 당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선민이라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존심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그러합니다. 차라리 나보다 의로운 사람에게 혼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마음조차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 나를 심판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에서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오는 칼이면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몸동이를 드십니다. 여러분을 수습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칼을 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칼날입니다. 징

계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끝나는 순간 진노의 몸동이는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노의 칼이 되어선 안됩니다. 징계의 몸동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악인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바로 하면 얼마든지 과거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성탄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의 과거를 내가 담당하겠습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주님을 닮아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가 부패하고 완악합니다. 그분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패역했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 백성을 멸망시켜서라도 여호와로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적인 교회를 위하여

남실거리라는 파도를 가르면서 왕의 명령을 받은 장군과 군인들이 그 나라에 속한 중요한 섬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왕을 대신하여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섬에 있는 영주에게 명령을 전하고, 그 명령의 시행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왕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들을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라고 하였습니

다. 사도(apostles)란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특

별히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을 향하여 직접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의 반열에 아무나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에 포함되는가 아닌가는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

하여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음을 주장하였고, 이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사도는 그 수가 새롭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는 초대 교회의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사도들의 시대에는 특별한 성경을 기록하여 진리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생각할 때, 사

도 시대는 그 이후의 시대와 분명히 구별됩니다. 사도적인 역할은 존재할 수 있으나 사도는 이미 초대교회의 현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회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적인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의미는 사도들의 실천(praxis, practice)입니다. 사도적인 행동은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과 새해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 할 것은 신앙생활 중에 잃어버린 사도적 전통을 다시 확립하여 나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실천을 위하여 작은 직용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된 회복의 출발입니다.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 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산한의원

원장 류재규 경산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초진 무료! T213-380-0853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 TRO, QWR, 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번호, 연방법, 주법 의거할.
- 그외 형사상체,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 888-210-1238 / FAX: 888-210-1239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2월 1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질, 위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과 판매다 각종 조립식 선반전문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금 샅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카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들이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텐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싱크대, 욕조, 반기 등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 교체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각종 Faucets, 디스포설,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amedia.com
1.888.894.8949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asafterschool.blogspot.com

민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SAS Afterschool

Pick up, 건강한 식판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785.2427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수입 90% 현금 양복 2벌에 고물 차 끌고 다니는 그

릭 워렌 목사, 부와 명예 주어졌을 때 결심한 것



새들백교회 리크 워렌 목사

지난 2일과 3일 '글로벌리더십서밋'을 열고 한인들에게 한국어 자막으로 미국 교계 지도자들의 강의를 제공한 와싱턴 중앙장로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는 부모 손을 잡고 온 자녀들부터 목회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한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특히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리크 워렌 목사(새들백교회 담임)는 '리더십은 청지기직입니다'라는 강연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큰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됐지만, 오히려 물질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는 목회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 한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워렌牧사는 "50명 남짓 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나는 한번도 부와 명예를 꿈꿔 본 적이 없다. 내 평생의 꿈은 딱 2가지였다. 한 교회를 개척해서 평생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다른 목회자들을 돕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뜻하지 않게 책을 통해 갑자기 주목을 받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돈과 명예로 뭘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워렌牧사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은 지난 3년 간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전 세계에서 약 3,000만권이 판매됐다. 부와 명예가 주어졌을 때 워렌牧사는 3가지로 결심했다.

그는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기로 하고 예전의 집, 옛날 타던 자동차를 그대로 타고 다니며, 여전히 양복 2벌로 생활한

다. 또 3년 전부터 교회 급료를 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으며, 지난 25년 간 교회에서 받았던 급료를 돌려줬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돈을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다. 대형교회 목회자는 돈을 많이 받는다는 선입견을 깨고 싶었다"고 했다.

또, 워렌牧사는 결혼 후 매년 수입조를 1% 씩 올려 하나님께 드렸었다. "나를 때때로 내 안에 물질주의를 깨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는 90%를 수입조로 드리고 10%로 생활하고 있다.

워렌牧사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가 생명의 샘이 되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쥐었을 때, 다시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되었다"며 "우리가 손에 어떤 것을 쥐고 있던 간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1세기 최대 난제로 5가지 문제를 꼽았다. 첫째는 영적 공허감, 둘째는 자기 중심 리더십, 셋째는 빈곤, 넷째는 질병, 다섯째는 문맹과 교육부족이다.

워렌牧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 처음 발간된 그 날, 아내에게 암이 발견됐다. 아내는 당시 1만 4천명이나 되는 에이즈에 걸린 고아 중 한 명도 알고 있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안타까워했다"며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에이즈 퇴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능이 적거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문제를 던져버리지 말라"며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글로벌리더십서밋에는 빌 하이벨스(윌로우크릭교회 담임목사)의 <다섯가지 결정적 질문>, 코리 부커(뉴저지 주 뉴어크 시장)의 <일어서십시오>, 마마 매기 고브란(이집트 스티븐스 어린이 사역 책임자)의 <함께 소명>, 앤디 스펀리(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의 <리더십의 초점>, 리 워렌(새들백교회 담임목사)의 <리더십은 청지기직입니다>, 스티븐 퍼틱(엘리베이션교회 담임목사)의 <담대한 믿음> 등 동영상을 강의가 생겼다.

권나라 기자

32억 횡령한 정삼지 목사 4년형에 법정구속

재판부, 교회 재정 투명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 반영

교회 헌금 32억원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교인들의 신앙을 악용해 32억여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해 교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고 교회가 회복하기 힘든 분열을 겪었다"고 판시한 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교회 성장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일은 한국교회의 재정적 불투명함이 사회적,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으로 교회의 투명한 재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무단으로 사용, 전용할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판례로 남게 됐다. 이에 앞서 제자교회는 법원으로부터 교회 장부를 교인들에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제자교회의 사례처럼 헌금이 목회자에 의해 유용되고 결국 횡령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불투명한 장부 관리에 기인한다. 대형교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월급에 해당하는 사례비와 관공비에 해당하는 목회활동비이다. 이 둘 외에 목회자가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 돈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 사역비"라는 명목 아래 "교회 돈이 내 돈, 내 돈이 교회 돈"이라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미 발달 교회 재정상황을 공유하고 인터넷 등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교회들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 대형교회인 E교회도 발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 교회 관계자는 "선교사 지원금 같은 경우도 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거쳐 계좌이체로 진행한다"며 "강사료 등을 현금으로 드릴 때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다"고 밝혔다.

설령 좋은 일에 사용한다 해도, 목회자가 개인의 돈으로 하지 않고 교회의 헌금으로 하는 한, 공동의 합의와 인가, 장부 기록은 필수다. 교회법 전문가인 김영훈 장로(교회법연구위원)는 "교회도 원칙적으로 회계법에 맞게 정리를 다 해야 하고, 영수증이 없으면 돈을 사용한 사람이 지불확인증이라도 써서 재정 처리를 정확히 하는 게 좋다"며 "자신이 착복한 게 아니라도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자기가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사후에라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로는 "어디에 왔다고는 비밀로 하더라도, 지불을 누가 했다는 게 장부상에서 정확히 나오면 된다"며 "그런 액수가 많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그러한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선교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돈을 교회가 헌금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목회자가 교회 전체의 합의와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적게는 교회에 온 선교사나 강사들을 접대하고 차비 정도의 성의를 표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에서 지출된다면 반드시 장부에 기록되고 지출되어야 한다. 한 교회 관계자는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고,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며 "개인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곳이지만 꼭 교회 성도들 헌금으로 하는지가 마음에 걸리는 경우에는 본인 월급에서 지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은 또 다른 한 교회는 교회를 방문한 선교사에게 차비 명목으로 5만원, 10만원씩 주다 보니 1년에 그 돈이 5천만원이 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지금 5천만원은 결국 작은 돈이 아니냐고.

일부의 경우, 공산권 선교 내지는 이슬람권 선교를 이유로, 혹은 외부에 알릴 수 없



정삼지 목사

는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헌금으로 들어온 헌금의 일부를 누락시켜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선교지에 후원하거나 착복한다든지, 교회 행사나 건축 시, 해당 업체로부터 거대한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관행도 모두 사실상 횡령 혹은 배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성공적 교회 성장을 이룬 정삼지 목사는 32억원에 대해 횡령 판결을 받으며 법정구속되기 전 선교비 명목으로 썼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처럼 자신이 투자해 큰 교회를 이룬 경우 교회를 본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심으로 돌아가 분열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준형 기자

세르비아 "온라인서 구매하는 이동식 교회" 등장

세르비아에서 새로운 방식의 교회 개척(?)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스스로 설치 가능한 이동식 교회가 등장한 것. 이러한 교회들은 실내 실외 디자인 회사인 Mancic Granit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인 Svetislav Mancic가 개발해 판매 중에 있다.

평균적으로 15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는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디자인 제작되고 완성과 함께 트럭으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배달된다. 도착한 교회를 설치하는 데 드는 시간 10여분 가량. 전 기만 연결하면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미니 교회가 된다.

교회의 기본 가격은 1만6천 달러이며 구매자가 선택한 자체 종류에 따라 그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주문을 받기 전에 회사측은 세르비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파인 세르비아정교회로부터 교회 건축에 대한 승인과 축복은 물론, 건물이 교회의 규례와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여러 편리함 때문에 이동식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현지 교인들이 늘고 있고 이미 주문도 상당수 이뤄졌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편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이 교회는 유



이동식 교회는 자동차로 운반해 원하는 곳에 설치하면 건축이 완료된다.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형태의 교회는 자칫하면 뒷마당에 세워진 채 친구 초대에만 쓰이면서 교회라 불리는, 개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손헌정 기자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인생칼럼(www.koreabn.com) [조선시대(레거) 선형]
"2년 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중

대한 할인

행사기간: 2011년 12월 15일까지

내리세요!
~~\$24.99~~ **\$14.99** /월

1.800.872.2902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30일 환불 보장!]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 미국, 캐나다 전지역
-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24.99~~ **\$14.99** /월
첫 6개월간, 이후 \$24.99/월

Global Unlimited Plus Plan

글로벌 플러스 플랜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34.99~~ **\$19.99** /월
첫 6개월간, 이후 \$34.99/월

MyKorea Number 마이코리아 넘버**
한국 070 전화가 필요없다! 무료

나만의 한국 전화 번호를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한국 070 전화가 필요없다! 무료

매월 500분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는 기존 해당대신구 아이토크비비 가입자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544**
동영상 10분 100% 보러

* 위대한 할인 프로모션 - 프로모션 기간 첫 6개월을 포함해 중 24개월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고객에 한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5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동안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반납이 필요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계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국제전화 가능할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유선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영토의 영토외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outhBayHyundai Super Store **SB**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2011년 마지막 재고 세일



블랙 FRIDAY를 놓치셨다면, 마지막 몇대 안 남은 2011년도 모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세요!

2011년 EQUUS

4대 보유

2011년 VERACRUZ

2011년 AZERA

2대 보유



2대 보유

이외에도 2012년도 최신형 모델을 가장 큰 현대 딜러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많은 재고를 가지고 편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모실 것을 다짐합니다.

품질 보증된 중고차 최저 이자율 2.49%

다른 딜러나 은행에서 융자 거절 되신 분
일정의 비용만 내시면 100% 융자해드립니다. 문의: 제니 김

'09 AUDI A4	(158347A)	\$25,900
'09 HYUNDAI ACENT	(PSB305602)	\$11,000
'08 HYUNDAI ELANTRA	(375687A)	\$9,900
'10 HYUNDAI GENESIS	(PSB099541)	\$28,500
'11 HYUNDAI GENESIS COUP	(P052678)	\$25,990
'11 HYUNDAI SONATA	(P051692)	\$17,990
'10 KIA FORTE	(PSB218528)	\$12,900
'01 MBZ S CLASS	(041808A)	\$10,900
'09 NISSAN CUBE	(P080274A)	\$13,900
'07 NISSAN QUEST	(252252A)	\$13,600
'09 TOYOTA CAMRY	(PSB098560)	\$14,900
'10 TOYOTA COROLLA	(P382033)	\$12,990

'05 BMW 3 SERIES	(BW77656)	\$14,300
'10 CHRYSLER TOWN&COUNTRY	(B351286)	\$19,800
'09 FORD FOCUS	(B252470)	\$14,300
'03 HYUNDAI ELANTRA	(B095484)	\$14,300
'10 HYUNDAI SONATA	(BP594207)	\$15,700
'06 KIA RIO	(B060987)	\$8,400
'06 LEXUS GS430	(042922A)	\$24,699
'08 NISSAN ALTIMA	(118594A)	\$15,600
'09 SICON XD	(B037153)	\$15,399
'08 TOYOTA CAMRY	(399803A)	\$12,000
'04 TOYOTA SEQUOIA	(034181A)	\$10,500
'10 TOYOTA YARIS	(B320052)	\$13,599

상기 모든 모델은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하고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하고 서비스를 받아보십시오. 진심으로 만족하실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클랜드에서 20분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212.6431

세일즈 시간

- ▶ 월-토 9:00am ~ 9:00pm
- ▶ 일 10:00am ~ 8:00pm

서비스 시간

- ▶ 월-금 7:30am ~ 6:00pm
- ▶ 토 8:00am ~ 2:00pm

직원 모집 한국인 상담 제니 김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
888.531.0890

이러서 제출 michaelkim@phhyundai.com

FREE CAR WASH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

ZOOM-ZOOM

전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형 2011 MAZDA 3

\$187 + TAX
Stock No. 490055

스페셜 0%

T.D.O. \$2,599
48month, 12K mile/yr O.A.C, with your 1st payment and license fee plus offer ends close of 11/31/11



한국인 상담 제니 김
1-888-536-0576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

2011년 마무리 재고 총정리 세일

New 2011 MAZDA 3 VIN:496489	New 2011 MAZDA CX7 VIN:388861	New 2011 MAZDA6 VIN:M15713	New 2011 MAZDA CX9 VIN:326585	New 2011 MAZDA MIATAS VIN:216920
MSRP 18,350	MSRP 22,785	DEALER D/C 5,200	MSRP 30,420	DEALER D/C 4,200
DEALER D/C 2,052	DEALER D/C 4,987	LOYALTY 500	DEALER D/C 5,625	LOYALTY 500
LOYALTY 500	LOYALTY 500	AUTO SHOW 300	LOYALTY 500	AUTO SHOW 300
AUTO SHOW 300	AUTO SHOW 300	NET PRICE 6,000	AUTO SHOW 500	NET PRICE 5,000
NET PRICE 15,498	NET PRICE 16,998		NET PRICE 23,995	

